

호남예술제 입상자 명단

발레	6 김민승(하백초5)	1 이경후외11명(광주한빛무용학원)
	8 문소이(계수초5)	◆실용무용
	▲은상	◇댄스포츠 군무 초등부
	4 박푸름(산정초5)	▲금상
	▲동상	1 박수현외7명(상지무용학원)
	1 김민교(삼각초5)	◇얼반댄스 독무 고등부
	2 김수아(송원초6)	▲동상
	3 서민경(백일초6)	1 임병은(광주경신여고3)
	7 한채희(선창초5)	◇락킹 독무 고등부
	◇창작 군무 초등부	▲금상
	▲최고상	1 고준서(970321생)
	1 신현규(광주계림초6)	◇락킹 독무 고등부
	▲금상	1 조수연(첨단고3)
	2 김은영(은빛초6)	◇재즈댄스 군무 초등부
	◇클래식 독무 중등부	▲금상
	▲최고상	1 오다인외1명(상지무용학원)
	4 류인웅(일동중2)	◇재즈댄스 독무 중등부
	▲금상	▲은상
	2 정유진(우산중2)	1 이민주(바이중2)
	▲은상	3 이지수(광주진흥중1)
	1 김민주(영천중1)	▲동상
	▲동상	2 유태란(화순중2)
	3 이승희(조대여중1)	◇재즈댄스 독무 고등부
	◇클래식 독무 고등부	▲최고상
	▲최고상	2 최혜승(광주예고3)
	1 김준관(광주예고3)	▲금상
	▲금상	1 조가이(금호중앙여고3)
	3 류성우(광주예고2)	▲은상
	▲동상	2 전예은(광주예고1)
	1 이민주(광주예고2)	3 강해나(병진고3)
	▲동상	▲동상
	2 박정윤(전남예고2)	1 최지원(수피아여고2)
	◇창작 독무 초등부 1,2	3 문혜선(수피아여고2)
	▲금상	◇재즈댄스 군무 중·혼합
	1 이연하(광주송원초2)	▲최고상
	▲동상	1 최혜승외11명(Black J Dance Academy)
	3 전율하(광주송원초2)	◇걸스합창 독무 중등부
	4 김보경(광주송원초2)	▲금상
	◇창작 독무 초등부 3,4	1 유혜린(봉선중3)
	▲금상	◇합창 독무 고등부
	7 조한울(하백초4)	▲금상
	14 김표정(삼각초3)	1 김현지(살레시오여고2)
	▲은상	▲은상
	3 박시은(운남초3)	2 정미금(서강고2)
	5 김리원(광주송원초4)	◇팝핀 독무 고등부
	10 박현선(산정초3)	▲은상
	▲동상	1 김병훈(서강고3)
	1 김지혜(광주송원초3)	◇합창 군무 고등부
	2 김서영(광주송원초4)	▲최고상
	4 강지우(광주송원초3)	2 김휘재외9명(B5S A-CADEMY)
	6 정혜원(광주송원초3)	▲금상
	8 김주원(광주송원초4)	1 김나연외3명(B5S A-CADEMY)
	9 이현나(광주송원초3)	
	11 정진원(광주송원초4)	
	12 정여진(광주송원초3)	
	13 김명지(광주송원초3)	
	◇창작 독무 초등부 5,6	
	▲금상	
	5 황보수(광주송원초6)	

현대·실용 무용

〈심사위원〉
임지형(조선대 교수)
여순심(광주여대 교수)

◆현대무용

- ◇독무 초등부 5,6
- ▲최고상
- 2 김노연(조봉초6)
- ▲금상
- 1 김예은(유안초6)
- ◇독무 중등부
- 3 조윤주(동성여중3)
- ▲은상
- 1 김률의(동아여자중3)
- 2 전예은(전대사대부중3)
- ◇독무 고등부
- ▲최고상
- 3 이가은(수피아여고3)
- ▲금상
- 1 강원준(수피아여고2)
- 6 김은화(광주예고2)
- 1 이경후(수피아여고3)
- ▲은상
- 2 최은하(광주여고1)
- 4 이세원(수피아여고2)
- 2 이효성(상무고3)
- ▲동상
- 3 한갑배(광주예고2)
- 5 박소연(대성여고1)
- ◇군무 초·중·고 혼합팀
- ▲최고상

용봉 책방 이전기념 내일 '책 나눔' 행사

아름다운가게가 운영하는 헌책방 광주 용봉 책방이 25일 오후 2~7시 이전 기념 '광주문화재단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책 나눔' 행사를 연다. 아름다운 가게 용봉책방은 최근 용봉동 타운센터 건물 2층에서 4층으로 이전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광주문화재단이 기증한 도서 등 1000여 점과 LP 500여 개를 특별 판매할 예정이다.

아름다운가게 용봉책방은 시민들이 기증하는 도서 등 물품으로 운영되는 헌책방으로 독후 활동, 독서발달심리치료, 그림

책 읽어주기, 사람책도서관 등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년간 기증된 도서는 26만5000여 권으로, 그동안 기증 도서 판매 수익금 10억5000여만원을 어려운 이웃과 풀뿌리 단체를 돕는데 사용했다.

한편 아름다운가게 용봉책방은 지난 18일 광주문화재단과 '문화 나눔 사업 공동발전', '상호교류 및 협력' 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문의 062-514-8975, 기증문의 1577-1113.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제59회 호남예술제 개막

광주일보가 주최하는 제59회 호남예술제가 23일 광주시 서구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개막, 열전에 들어갔다. 이날 실용무용 재즈댄스 부문에 참가한 블랙 제이 댄스 아카데미(Black J Dance Academy) 학생들이 '레인보우'를 무대에 올리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다양한 색깔·소리 내려 성격도 바꿨죠”

내일 광주시향과 협연 호남예술제 출신 피아니스트 문지영씨

한예종 수석 입학... 에틀링엔·다카마쓰 콩쿠르 1위

여수 출신 문지영(19·한국예술종합학교 1학년)씨는 요즘 떠오르는 피아니스트다.

2012년 독일 에틀링엔 피아노 콩쿠르에서 손열음, 김선옥 이후 한국인으로서는 8년 만에 1위에 올랐던 그녀는 올해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수석 입학했다. 3월에는 일본 다카마쓰 콩쿠르에서 1위를 차지하며 이름을 알렸다.

문씨는 25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화회관 소극장에서 열리는 광주시립교향악단과의 협연 무대를 통해 광주 클래식 팬들을 처음 만난다. 23일 협연곡인 쇼스타코비치의 '피아노협주곡 1번' 리허설을 마친 그녀를 인터뷰했다.

“다카마쓰 콩쿠르는 지금까지 참가한 대회 중 규모도 가장 컸고, 제대로 된 성인 콩쿠르였어요. 유명 콩쿠르 DVD에서 봤던 사람들이 많이 보이고, 심리적 부담도 많았어요. 10일 넘게 경연이 진행되고 소화해야 할 곡도 많았죠. 이번 콩쿠르를 위해 일본 작곡가가 만든 곡을 초연하는데 작곡가가 현장에서 듣고 있다고 생각하니 긴장도 됐구요.”



문씨가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한 건 5살 때였다. 유치원에서 처음 피아노 소리를 접하고 엄마에게 배우고 싶다고 졸랐다. 그녀는 여수 문수초등학교 6학년 때 호남예술제에서 최고상을 수상했다. 같은 해 선화예술고 콩쿠르에서 우승, 선화영재아카데미 레슨 기회를 얻었다. 이후 '아트 드림 콩쿠르'에서 대상을 받으며 피아니스트 김대진(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와 인연을 맺었다. 그녀는 6년간 매주 한차례씩 서울에 올라가 레슨을 받았다.

그녀는 중·고등학교를 다니지 않았다. 본인의 선택이었다. 공부보다 피아노 치는 게 좋았기 때문이다. 고등학교 때까지는 매일 8시간을 연습에 매달렸다.

“초등학교 때는 곡을 하나씩 배울 때마다 칠 수 있는 곡이 늘어나니까 그게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빨리 끝내고 또 새로운 곡을 배우고 싶고 그랬죠. 중학교에 입학은 했었어요. 방학 때 음악캠프에 갔는데 예술종합학교에 다

로서가 아닌, 다른 쪽으로 자꾸 기사가 나가 인터뷰를 꺼리기도 했어요. 지금은 신경 안 써요. 언론 보도를 잘 보지는 않는데 '제 이야기를 통해 희망을 주고 싶으신가 보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녀가 요즘 빠져 있는 연주자는 포르투갈 출신 마리아 후안 피레스와 미츠코 우치다. 특히 후안 피레스의 '모차르트 협주곡'을 자주 듣는데 연주를 듣고 울었다. 존경하고, 닮고 싶은 연주자라고 했다. 그녀는 슈만과 베토벤 등 독일 고전·낭만 음악들을 좋아한다.

“특히 슈만의 음악이 저하고 잘 맞는 것 같아요. 인간적인 매력도 있고요. 그의 곡에는 격렬함과 내성적 은화함이 잘 표현돼 있어요. 인간은 누구나 이중적인 면이 있잖아요. 그 두가지가 절묘하게 조화된 게 슈만의 음악인 것 같아요.”

대학에 입학하면서 그녀의 서울 생활이 본격 시작됐다. 피아노와 동기들과 추억도 만들어가는 중이다. '나리'와 '90' 강아지 두 마리를 산책시키는 것도 주된 일과다.

“사람의 성격이 연주에도 그대로 반영되는 것 같아요. 아이 때는 굉장히 내성적인 성격이어서 조용하고, 가라앉은 스타일의 연주였어요. 한 곡 안에도 경쾌한 부분과 음울한 부분이 모두 있는데 한 방향으로만 연주를 했던 거죠. 사교성도 키우고 성격도 바꾸려 노력했죠. 다양한 색깔과 소리를 내는 게 중요하거든요. 선생님께서 표현력을 키우려면 연극을 보라고 하셔서 연극과 영화도 자주 보며 간접 경험기회를 많이 가지려고 해요.”

문씨는 앞으로도 콩쿠르에 도전하겠다고 했다. 좋은 성적을 거둘 경우 연주기회도 많이 주어지고 무엇보다 준비하면서 배우는 게 많기 때문이다. 마침 이날은 호남예술제가 개막하는 날이었다. 선배로서 조언을 부탁했다. 속삭려듯 그녀가 말했다.

“맞습니다. 그런 것은 중요한 게 아닌 듯해요. 저도 콩쿠르에서 많이 떨어져 봤죠. 최선을 다해 연주했느냐가 중요하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 자신 스스로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연주를 하고 싶어요. 그런 연주였다면 떨어져도 후회는 없어요.”

한편 이번 광주시립교향악단 연주회는 김영연 부지휘자가 지휘봉을 잡으며 타케미치의 '낙원의 신호 II' 중 '밤의 신호', 베토벤의 '교향곡 1번'이 함께 연주된다. 티켓 가격 1만원. 문의 062-524-5086.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이태리 가구 40% OFF SALE

www.hong79.com(홍친구닷컴) **신상품 다량 포함**

광주광역시 동구 장동로터리 58-15(동구청옆) **가구빌딩** ☎ 1899-0240 **이태리가구 직수입 판매** 5월19일까지 한정판매